

지역 유통가 '데이 마케팅'으로 매출 높인다

백화점·마트 등 할로윈데이 한 달 전부터 테마상품 출시·행사 '빼빼로데이'·수학능력시험 앞두고 초콜릿·찰싹떡 선물 등 내놔

올 상반기 매출 부진을 겪은 지역 유통업체가 각종 'OO데이' 마케팅을 앞세우며 하반기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 매장은 '할로윈데이'(Halloween Day·10월31일)를 앞두고 한 달 여 전부터 '할로윈' 테마 상품을 출시하고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8일부터 27일까지 '롯데백화점과 함께 하는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한다. 8층 어린이용품 매장에서는 '할로윈 포토존'을 마련했고 오는 26일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할로윈 케이크 만들기

'할로윈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선착순 접수·진행한다. 가족 단위 방문이 잦은 대형 마트도 '할로윈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마트 광주수원점에 있는 어린이 완구매장 '토이저러스'는 10~31일 '할로윈 파티용품·선물 기획전'을 연다. 이곳에서는 유령이나 해골, 좀비가 그려진 모자, 망토, 가면 등 총 100여종 할로윈 테마 제품을 선보이며 어린이 자녀를 둔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 매장은 23일까지 할로윈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하면 2000원의 할인권을 지급한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할로윈 고객 잡기도 치열하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할로윈 분위기를 반영한 충전식 지불 카드와 음료 3종, 식품 8종을 잇달아 출시했고 '할리스' '이디야' 등 브랜드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 모바일 이벤트를 열고 있다. 광주·전남에 7개 매장을 둔 롯데쇼핑(주)의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홀스'도 할로윈 분장을 위한 메이크업 제품 25종과 파티용 식음료 45종 등 총 80종을 최대 반값 할인 판매하고 있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단호박 몬스터 케이크' '드라큘라 쿠키' 등 할로윈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디저트 제품을 이달까지 선보인다. 1000원~2000원대 '가성비' 높은 제품을 내세우는 '아성다이소'도 지역 매장에

서 할로윈 파티를 위한 소품 230여 종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1월은 이른바 '빼빼로데이'(11일)와 수학능력시험(14일)이 있어 유통업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과자·초콜릿·찰싹떡 등 기존에 많이 팔린 제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 등으로 선물용 소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브로앤티스'는 고교생을 겨냥한 '열공스킨 미스트 포 슬리피 스텀던트'를 선보였고 수험생의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한약성분 제품, 안정액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능 전날 약 18만2000 그릇의 죽을 판매한 '분죽'은 올해도 '낙제안 없다'는 '분죽' 마케팅을 이어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ITX,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컨택센터 사업' 키운다

브라이트 패턴·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업무 협약

효성의 정보기술(IT) 계열사 효성ITX가 국내업계 최초로 컨택센터(콜센터) 운영체제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20일 효성ITX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인 브라이트 패턴(Bright Pattern),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등과 클라우드 컨택센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효성ITX는 NBP의 서버, 클라우드 등 IT 인프라 기반에 브라이트 패턴의 클라우드 솔루션이 적용된 컨택센터 운영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기존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기존의 교환기, 서버, 보안장비 등을 대체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 ARS, 녹취 등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

외에 로봇을 활용한 챗봇 상담, 상담 모니터링, 고객 분석, 상담 품질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어 최적화된 컨택센터 운영이 가능하고, 상담 인원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컨택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 건 국내 최초"라면서 "그동안 컨택센터 운영 비용 부담이 컸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상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존 사업에 IT 기술을 융합해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효성ITX의 클라우드 솔루션이 다양한 정책과 이용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풍향동에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

롯데건설 재개발 입찰 지상 49층 설계 제안

롯데건설이 지상 49층 초고층 랜드마크를 내세워 광주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롯데건설은 광주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전 입찰에서 초고층 아파트 설계를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총 3070가구 규모다. 여기에 롯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 캐슬'을 적용해 단지의 상징성과 희소성, 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른 지방도시에는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지만 광주에는 초고층 단지가 드물다"며 "초고층 아파트 조성이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초고층 아파트 조성이 법규 위반이 아닌 심의사항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또 "49층 랜드마크 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묻은 결과, 층수 제한은 없으며 층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풍향재개발구역에서는 높은 층수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은 49층 랜드마크 건물을 광주시 최초 거대한 금관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그니처 크라운타워로 조성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3개 동을 연결하는 원형 스카이라이프지 2개소를 설계해 하늘을 가르는 듯한 웅장한 외관을 완성할 방침이다. 특히 스카이라이프에는 게스트 갤러리, 게스트룸, 파티갤러리, 아트갤러리, 스카이라이프, 전망대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녹지율이 약 40%로, 단지 곳곳에 수변공원, 테마공원, 산책로, 놀이터, 휴게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은 다음달 9일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30번째 수도권 점포 서울 마곡지점 개점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에 수도권 30번째 점포인 마곡지점을 개점했다. 송중욱(왼쪽 다섯번째) 행장과 관계자들이 기념 행사를 마치고 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8일 광주은행의 144번째 점포이며, 수도권 점포로는 30번째로 서울 강서구에 마곡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은행은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철봉 SM그룹 부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윤형관 하이글로벌그룹 회장,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 공병탁 라인건설 회장,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가졌다.

서울 마곡지구는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교통 등 편리한 교통시설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기업의 R&D센터 이전 및 산업단지 입주 등을 통해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이다.

광주은행은 마곡지점 개점을 통해 신성장지역에 영업망을 추가 확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2015년부터 수도권 진출을 시행함으로써 현재 성공적인 영업 영토 확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앞으로 주력 영업지역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성장영업지역인 수도권을 상대로 신시장 개척 전략을 추진해 100년 은행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고객님께 더 가까이 다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고객맞춤 상품개발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양파 파동 보조금 914억 가능 불구 43억 절감 지원

민주당 서삼석 의원 지적

지난 7월 양파 파동으로 생산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지급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절감 지원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특정 허용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파·마늘·배추·무·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허용보조금이 4.0%~4.6%에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최소허용 보조금을 연간 생산액의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지난해 총 생산액 9140억원이었던 때문에 양파 보조금으로 91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양파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 914억원의 4.7%인 43억8000만원만

지원했다. 마늘은 지난해 1116억원의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74억5000만원(6.6%)만이 지급됐고, 배추는 66억원의 4.7%인 31억7000만원, 무는 562억원의 4.4%인 24억9000만원, 고추는 1017억원의 1.6%인 16억60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관세 감축과 국내 보조에서 우대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88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18	20	26	27	32	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03,212,282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9,815,170				67
3	5개 숫자일치	1,524,722				2,189
4	4개 숫자일치	50,000				116,952
5	3개 숫자일치	5,000				1,939,849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